

돌아가신 할머니에게서 사랑을 배우다



안 명 기
시인·수필가

〈지난 호에 이어〉

‘하튼 애비 없는 자식들은…….’

조금 전 점빵 주인 아주머니가 한 말이 앵앵거리며 귓전을 맴돌 뿐 영 떠나가질 않습니다.

아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 번의 맹장수술 끝에 결국 두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간경화였는데, 의사가 오진을 한 것입니다. 아빠에게는 터울이 약간 나는 형이 둘 있는데, 철이 든 형들은 일찍이 객지로 나갔습니다. 눈을 감기 전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찾았고, 특히 아빠와 아빠의 어린 동생 둘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할머니는 더욱더 조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말씀하

셨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들이라고 말 들어든 안 되는기타. 그라도 하늘나라에 간 니 아버지 욱 봐는기다. 알아듣겠노?”

할머니는 결눈 한번 팔지 않고 오남매를 건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상구 사건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하튼 애비 없는 자식들은…….’

‘애비 없는 자식들이라고 말 들으면 안되는기타. 그라도 하늘나라에 간 니 아버지 욱 봐는기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이 머릿에서 지워지기는 커녕 더욱 새록새록 해졌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의 아버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녁을 먹은 후 점빵으로 향했습니다.

밖은 땅거미가 끼어 어둑어둑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다행히 아직도 1원짜리 종이돈 두 장이 꼬깃꼬깃 구겨져 있습니다.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떨리는 음성으로 점빵문을 두드립니다.

“봐야요…….”

희미한 호롱불 아래로 젊은 아주머니 한 분이 뼈죽이 고개를 내밀습니다.

“아니! 니? 민구 아이가? 그래, 니 우짤 일이고?”

“저어…….”

“답답다. 후딱 말해 보거래이.”

“지지난 번에 공책하고 연필 그라고 뽀빠이 한 봉지하고 풍선껌 한 통 훔쳤습디.”

순간 주인은 놀라서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뒤탈꼬? 참말이고? 미, 친구 니가 그런 짓을 했던 말이가?”

“야, 다신 안 그러겠심더. 한 번만 용서해주 이소.”

어린 아빠는 꼬깃꼬깃한 때 묻은 1원짜리 종이돈 두 장을 마루에 엎어놓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끄럽다. 참말로 믿을 놈 없다카더라, 설마 친구 니까지 그럴 줄 몰랐데이.”

주인은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을 길게 내뿜고는,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팡’ 하고 닫아버립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 할머니

니가 오셔서 주인아주머니한테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고 있는 아빠를 엮다시피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주르르 흘리십니다.

아빠는 자리에 누웠지만 조금 전 일 때문에 좀처럼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렴풋이 잠이 들 즈음에, 가늘게 떨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문을 살며시 열고 밖을 내다보고는 가슴이 짝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장독대 한가운데서 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구 아버지요, 도와주이소. 아이들이 빼돌어 지모 진구 아버지가 욕 먹심더. 아들 애비 없는 자숙이라는 말 듣게 하고 싶진 않심더. 우에든 동 아들끼리 우애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이소. 부디 도와주이소.”

어느새 아빠의 두 눈에서는 닭뎡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빠의 형제는 남들처럼 넉넉하게 잘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빠, 큰아빠 두 분, 그리고

고모와 작은아빠, 즉 아빠의 형제들의 우애는 남다른니다. 또한 우리 사촌들과도 우애가 남다른니다. 모두가 아빠의 형제들에게 몸소 배우고 익혔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형제들은 마음에 갈등이 요동칠 때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을 잡아준답니다.

‘애비 없는 자숙들이라고 말 들으면 안되는기라. 그라모 하늘나라에 간 니 아버지 욕 보는 기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엄하고 남들에게 후하했던 할머니가 천수를 누리시고, 지난 추석에 운명하셨습니다.

할머니 장례는 대전에서 치러졌습니다.

교통이 마비된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조문객이 700명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일개 시골 할머니 죽음에 이렇게 많은 조문객이 다녀 간 것이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도 할머니의 말씀

을 되새기며 아빠는 저희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물질은 없어 베풀 수 없어도, 사랑과 정은 베풀 수 있는 기라.”

우리 가족을 태우고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창 너머 저 멀리서 할머니께서 빙그레 웃고 계십니다.

한 번도 뵈지 않은 인자하게 생기신 할아버지 한 분과 함께.....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랗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앞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아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